

지방의회법 제정 공청회 관련 기사 목록

연번	보도일	매 체	제 목	비고
1	3.12	동아일보	서울시의회 의장, “지방의회법 제정해 지방자치 시대 열 것”	
2		서울신문	서울시의회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3		서울신문	신원철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단장 ‘지방의회법 공청회’서 기조발언	
4		연합뉴스	서울시의회 의장, 지방의회법 제정 공청회 개회사	
5		뉴스스	서울시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공청회 성료	
6		국제뉴스	전현희 의원·서울시의회, 지방의회법 발의 공청회 개최	
7		신문고뉴스	전현희·서울시의회, 지방의회법 발의 공청회 개최	
8		축제뉴스	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한 지방의회 위상 제고 필요”	
9		한국정경신문	양준욱 서울시의장, 지방의회법 연내 국회 본회의 가결 촉구	
10		송파타임즈	시의회, 지방의회법안 제정 공청회 개최	
11		KNS 뉴스통신	신원철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단장, ‘지방의회법’ 제정 공청회 좌장으로 참석	
12		KNS 뉴스통신	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 지방의회법 조속한 통과 위해 앞장서	
13		전국매일신문	전현희 의원·서울시의회, 지방의회법 발의 공청회 개최	
14		뉴민주신문	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한 지방의회 위상 제고로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 열 것”	
15		국토매일	“‘지방의회법’ 제정은 지방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	
16		미디어투데이	“‘지방의회법’ 제정은 지방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	

연번	보도일	매 체	제 목	비고
17	3.12	뉴민주신문	“지방의회법’ 제정은 지방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	
18		중부뉴스통신	“지방의회법’ 제정은 지방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	
19		매일일보	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한 지방의회 위상 제고로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 열 것”〈공청회〉	
20		신아일보	서울시의회 의장 “지방의회법 제정해 지방자치 시대 열 것”	
21		뉴스1	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 ‘지방의회법’ 연내 국회 통과 촉구	
22		서울일보	서울시의회, 지방의회법(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23		서울일보	신원철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단장 “지방의회법 제정, 지방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	
24	3.13	수도권일보	“지방의회법 제정 민주주의 발전 기여”	
25		내일신문	“지방권력도 삼권분립 필요”	
26		산경일보	서울시 지방자치 풀뿌리 민주주의	
27		국제뉴스	[국제뉴스TV] 지방의회법 발의 공청회	
28		tbs뉴스	국회·서울시의회 “지방의회법 제정에 힘 모아야”	
29		강원도민일보	신원철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단장 “지방의회법 제정, 지방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	
30		폴리뉴스	신원철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단장, “지방의회법 제정은 지방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	
31		구민신문	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강동구3), “地方議會法 제정을 통한 지방의회 위상 제고로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 열 것”	
32		전국매일신문	서울시의회 양준욱 의장,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한 지방의회 위상 제고로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 열 것”	

연번	보도일	매 체	제 목	비고
33	3.12	시민일보	서울시의회-전현희 국회의원, 지방의회법 제정 공청회 열어	
34		시정일보	서울시의회, '지방의회법(안)' 제정 공청회	
35		국토매일	김광수 시의원, '지방의회법 제정 공청회' 토론자 참석	
36		중부뉴스통신	김광수 시의원, '지방의회법 제정 공청회' 토론자 참석	
37		서울신문	김광수 서울시의원 '지방자치법 제정 공청회' 토론자 참석	

서울시의회 의장 “지방의회법 제정해 지방자치 시대 열 것”

김용만 기자



(사진=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는 12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지방의회법(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전현희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서울특별시의회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노력으로 결심을 맺은 지난 2월 지방의회법(안) 발의의 후속작업으로서,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날 신원철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단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되었으며, 고운현 한국헌법학회장, 김태영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 김광수 서울시의원, 하해영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안성용 CBS 정치부장 등 5인 패널의 발표와 질의로 구성됐다.

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방의회에 오랜 숙원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안)을 대표발의하고 공청회를 함께 개최해주신 전현희 국회의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지방의회법(안)의 제정 취지는 낱알이 외연을 넓혀가는 지방정부의 행정을 보다 철저하게 감시·견제하고, 주민 뜻에 부합하는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위상을 확보하기 위함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청회에는 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김광수(노원), 김동욱, 김선갑, 김정태, 김제리, 김태수, 김창원, 문영민, 서윤기, 신원철, 조규영 의원 등 12인의 서울시의원이 참석했다.

또 공동주최자인 전현희 국회의원을 비롯 김두관, 김성수, 노웅래, 박범석, 박영선, 신창현, 우원식, 이용주, 이훈 의원 등 10인이 참석했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

서울시의회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서울시의회(의장 양준옥)는 12일 오전 10시 30분에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지방의회법(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전현희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개최했다.



▲ 서울시의회가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갖고 양준옥 서울시의회 의장(앞줄 왼쪽 여섯번째)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공청회는 서울시의회의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결실을 맺은 지난 2월 8일 지방의회법(안) 발의의 후속작업으로서,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1부 개최식에서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주요 인사들이 서울시의회의 지방분권 실현 노력을 격려하고, 지방의회법(안) 제정 취지와 필요성에 깊은 공감을 표했다.

2부 공청회는 신원철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단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되었으며, 신원철 단장의 기초발언에 이어, 고문현 한국헌법학회장, 김태영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 김광수 서울시의원, 허혜영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안상용 CBS 정치부장 등 5인 패널의 발표와 질의로 구성됐다.

● "지방의회 위상 확립을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되어야"

신원철 단장은 기초발언을 통해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운영 되듯이 지방의회도 지방의회 운영 전반에 대한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으며,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는 2017년 6월부터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 왔고, 그 노력의 결실로 지난 2월8일 지방의회법(안)이 발의됐다"고 강조했다.

김광수(노원) 의원은 "지방분권은 국가의 경쟁력"이라며 "지방의회법(안)은 대한민국의 지방분권을 위해 지방의회 스스로가 위상확립을 추구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인 '자치와 분권'의 가치를 생각한다면 지방의회법(안)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영 교수는 "지방의회법(안)은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 강화라는 시대정신을 담고 있으며, 대통령이 밝힌 연방제 수준의 분권을 실현 시키고 제왕적 단체장의 등장을 막을 수단으로서도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고문현 한국헌법학회장은 "지방의회법(안)이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도록 체계적으로 제정되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발표하면서 법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했다.

안상용 정치부장은 "지방분권의 의침에 대해 중앙언론이 침묵하고 있다는 지심론도 있다.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중앙언론의 역할도 중요하고, 지방의원 또한 국회의원의 지역대리인 역할에 그쳐서는 안 된다.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로 구성되는 지방의원들이 적극적인 활동으로 언론을 타고, 언론이 지방의회에 대해 관심을 갖는 선순환 고리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해영 입법조사관은 "지방의회법(안)은 지방의회 독립성을 강화하고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목적으로 발의되었으나,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에 따라 지방의회법(안) 규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과의 분리에 따른 실익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 "지방의회법(안) 연내 국회 본회의 가결 촉구"

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방의회의 오랜 숙원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안)을 대표발의하고 공청회를 함께 개최해주신 전현희 국회의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인사를 먼저 전한 후, "지방의회법(안)의 제정 취지는 낱말이 외연을 넓혀가는 지방정부의 행정을 보다 철저하게 감시·건제하고, 주민 뜻에 부합하는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위상을 확보하기 위함이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지방의회법(안) 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한계를 극복하고 위상을 제고하여,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를 준비하겠다"며, "올해 안에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될 수 있도록 전현희 국회의원실과 긴밀한 공조와 노력을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번 공청회에는 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을 비롯하여 김광수(노원) 의원, 김동욱 의원, 김선갑 의원, 김정태 의원, 김제리 의원, 김태수 의원, 김창원 의원, 문영민 의원, 서울기 의원, 신원철 의원, 조규영 의원 등 12인의 서울시의원이 참석했으며, 공동주최자인 전현희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김두관 의원, 김성수 의원, 노웅래 의원, 박병석 의원, 박영선 의원, 신창현 의원, 우원식 의원, 이용주 의원, 이훈 의원 등 10인의 국회의원이 자리를 빛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신원철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단장 '지방의회 법 공청회'서 기조발언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 신원철 단장(서대문1,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 좌장으로 참석하여 토론을 이끌었다.



▲ 신원철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단장(왼쪽 세번째)이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제정 공청회'에서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이번 공청회는 서울시의회의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결실을 맺은 지난 2월 8일 「지방의회법(안)」 발의의 후속작업으로서, 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원철 단장은 기조발언을 통해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운영 되듯이 지방의회도 지방의회 운영 전반에 대한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으며,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는 작년 6월부터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 왔고, 그 노력의 결실로 지난 2월8일 「지방의회법(안)」이 발의됐다"고 강조했다.

「지방의회법」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핵심 축인 지방의회와 지방정부 사이의 견제와 균형을 확립하고, 지방의회의 조직·운영 등의 전반을 아우르는 지방의회 기본법의 성격 띠고 있으며,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을 비롯해 지방의회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등 서울시의회의 지방분권 7대 과제를 모두 담고 있다.

신원철 단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위상강화와 독립성, 자율성 확보는 물론 대한민국 지방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지방의회법」이 올해 본회의에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의견을 부탁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 지방의회법 조속한 통과 위해 앞장서



[KNS뉴스통신=백영대 기자] 서울시의회(의장 양준욱)는 12일 오전 10시 30분에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지방의회법(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전현희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서울특별시의회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결실을 맺은 지난 2월 8일 지방의회법(안) 발의의 후속작업으로서,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방의회의 오랜 숙원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안)을 대표발의하고 공청회를 함께 개최해주신 전현희 국회의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지방의회법(안)의 제정 취지는 낱알이 와연울 낚여가는 지방정부의 행정을 보다 철저하게 감시·견제하고, 주민 뜻에 부합하는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위상을 확보하기 위함이다"고 밝혔다.

또 양 의장은 "지방의회법(안) 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한계를 극복하고 위상을 제고해,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를 준비하겠다"며, "올해 안에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될 수 있도록 전현희 국회의원과 긴밀한 공조와 노력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1부 개회식에서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주요 인사들이 서울특별시의회와 지방분권 실현 노력을 격려하고, 지방의회법(안) 제정 취지와 필요성에 깊은 공감을 표했다.

2부 공청회는 신원철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단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신원철 단장의 기초발언에 이어, 고문헌 한국헌법학회회장, 김태영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 김광수 서울시의원, 하해영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안성용 CBS 정치부장 등 5인 패널의 발표와 질의로 진행됐다.

먼저, 신원철 단장은 기초발언을 통해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운영되듯이 지방의회도 지방의회 운영 전반에 대한 법이 필요하다"며,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는 2017년 6월부터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 왔고, 그 노력의 결실로 지난 2월8일 지방의회법(안)이 발의됐다"고 밝혔다.

이어 김광수(노원) 시의원은 "지방분권은 국가의 경쟁력이며, 지방의회법(안)은 대한민국의 지방분권을 위해 지방의회 스스로가 위상확립을 추구하고 있는데 의의가 있다"며,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인 '자치와 분권'의 가치를 생각한다면 지방의회법(안)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다음으로 김태영 교수는 "지방의회법(안)은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 강화라는 시대정신을 담고 있으며, 대통령이 밝힌 연방제 수준의 분권을 실현 시키고 제왕적 단체장의 등장을 막을 수단으로서도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또, 고문헌 한국헌법학회장은 지방의회법(안)이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도록 체계적으로 제정되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발표하면서 법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했다.

안성용 CBS 정치부장은 지방분권의 외침에 대해 중앙언론이 침묵하고 있다는 지적론도 있다.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중앙언론의 역할도 중요하고, 지방의원 또한 국회의원의 지역대리인 역할에 그쳐서는 안 된다.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로 구성되는 지방의원들이 적극적인 활동으로 언론을 타고, 언론이 지방의회에 대해 관심을 갖는 선순환 고리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해영 입법조사관은 지방의회법(안)은 지방의회 독립성을 강화하고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목적으로 발의됐으나,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에 따라 지방의회법(안) 규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과의 분리에 따른 실무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한편, 이번 공청회에는 양준욱 서울시의회회장을 비롯하여 김광수(노원) 의원, 김동욱 의원, 김선갑 의원, 김정태 의원, 김세리 의원, 김태수 의원, 김창원 의원, 문영민 의원, 서윤기 의원, 신원철 의원, 조규영 의원 등 12인의 서울시의원이 참석했으며, 공동주최자인 전현희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두관 의원, 김성수 의원, 노웅래 의원, 박병석 의원, 박영선 의원, 신창현 의원, 우원식 의원, 이용주 의원, 이훈 의원 등 10인의 국회의원이 자리를 빛냈다.

서울시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공청회 성료



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 "지방의회법 제정 통해 진정한 지방자치시대 준비"

신원철 지방분권TF단장 "지방의회도 지방의회 운영 전반에 대한 법이 필요"

【서울=뉴스시스】 박대호 기자 = 서울시의회(의장 양준욱)는 12일 오전 10시30분에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지방의회법(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전반기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달 8일 지방의회법안 발의에 따른 후속작업이다.

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은 개회사에서 "지방의회법안 제정 취지는 나날이 외연을 넓혀가는 지방정부의 행정을 보다 철저하게 감시·견제하고 주민 뜻에 부합하는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위상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양 의장은 또 "지방의회법안 제정을 통해 지방의회 의 한계를 극복하고 위상을 제고해 진정한 지방자치시대를 준비하겠다"며 "올해 안에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원철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단장은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운영되듯 지방의회도 지방의회 운영 전반에 대한 법이 필요하다"며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는 지난해 6월부터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왔고 그 노력의 결실로 지난 2월8일 지방의회법(안)이 발의됐다"고 소개했다.

김광수(노원) 시의원은 '지방의회법안은 대한민국의 지방분권을 위해 지방의회 스스로가 위상확립을 추구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인 자치와 분권의 가치를 생각한다면 지방의회법(안)은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영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방의회법안은 지방의회 의 권한과 위상 강화라는 시대정신을 담고 있다'며 "대통령이 밝힌 연방제 수준의 분권을 실현시키고 세왕적 단체장의 등장을 막을 수단으로서도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고문현 한국헌법학회장은 "지방의회법이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도록 체계적으로 제정됐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안성훈 CBS 정치부장은 "지방분권의 의침에 대해 중앙언론이 침묵하고 있다는 자신론도 있다.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중앙언론의 역할도 중요하고 지방의원 또한 국회의원의 지역 대리인 역할에 그쳐서는 안된다"며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로 구성되는 지방의원들이 적극적인 활동으로 언론을 타고, 언론이 지방의회에 대해 관심을 갖는 선순환 고리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해영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지방의회법안은 지방의회 독립성을 강화하고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목적으로 발의됐지만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에 따라 지방의회법안 규정이 변경될 수 있다"며 "지방자치법과의 분리에 따른 실익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현희 의원·서울시의회, 지방의회법 발의 공청회 개최

이형노 기자 hnlee@gukjenews.co.kr



▲ 사진=전현희 의원

(서울=국제뉴스) 이형노 기자 =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남을)은 오늘 12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서울시의회와 함께 "지방의회법 발의 공청회"를 개최했다. 전 의원은 지난 2월 지자체와 지방의회 사이의 견제와 균형을 확립하고, 지방의회의 조직·운영 등 전반을 아우르는 지방의회법을 최초로 대표발의하며 공청회 개최 등 후속조치를 약속한 바 있다.

전현희 의원과 서울시의회가 공동주최한 이번 공청회에서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비롯하여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과 자치조직권 도입 등 서울시의회의 지방분권 7대 과제를 모두 담고 있는 지방의회법과 관련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이 제기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늘 공청회의 진행과 발제는 서울시의회 신원철 지방분권 TF단장이 맡았으며, 고문한 한국법학회장과 김대영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 김광수 시의원, 하혜영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안성용 CBS 청서부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전 의원은 "최근 개헌과 관련하여 지방분권은 가장 중요한 화두 중 하나로, 이제 지방분권은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정신이 되었다"며, "무더기 이번 공청회가 지방의회의 법적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소중한 토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한 지방의회 위상 제고로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 열 것”<공>

백중현 기자



서울시의회는 1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지방의회법(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양준욱 의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서울시의회(의장 양준욱)는 1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지방의회법(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전현희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서울시의회의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결실을 맺은 지난 2월 8일 지방의회법(안) 발의의 후속작업으로서,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열렸다.

1부 개회식에서는 위원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주요 인사들이 서울시의회의 지방분권 실현 노력을 격려하고, 지방의회법(안) 제정 취지와 필요성에 깊은 공감을 표했다.

2부 공청회는 신원철 서울시회 지방분권TF단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신원철 단장의 기초발언에 이어, 고문현 한국헌법학회장, 김태영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 김광수 서울시의원, 하해영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안성용 CBS 정치부장 등 5인 패널의 발표와 질의로 구성됐다.

◇“지방의회 위상 확립을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 돼야”

신원철 단장은 기초발언을 통해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운영 되듯이 지방의회도 지방의회 운영 전반에 대한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는 2017년 6월부터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 왔고, 그 노력의 결실로 지난 2월8일 지방의회법(안)이 발의됐다”고 강조했다.

김광수(노원) 시의원은 “지방분권은 국가의 경쟁력”이라며 “지방의회법(안)은 대한민국의 지방분권을 위해 지방의회 스스로가 위상확립을 추구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인 ‘자치의 분권’의 가치를 생각한다면 지방의회법(안)은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영 교수는 “지방의회법(안)은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 강화라는 시대정신을 담고 있으며, 대통령이 밝힌 연방제 수준의 분권을 실현 시키고 제왕적 단체장의 동장을 막을 수단으로서도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고문현 한국헌법학회장은 “지방의회법(안)이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도록 체계적으로 제정되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발표하면서 법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및 가지 제언을 했다.

안성용 정치부장은 "지방분권의 외침에 대해 중앙언론이 침묵하고 있다는 자성론도 있다.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중앙언론의 역할도 중요하고, 지방의원 또한 국회의원의 지역대리인 역할에 그쳐서는 안 된다.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로 구성되는 지방의원들이 적극적인 활동으로 언론을 타고, 언론이 지방의회에 대해 관심을 갖는 선순환 고리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해영 입법조사관은 "지방의회법(안)은 지방의회 독립성을 강화하고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목적으로 발의되었으나,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에 따라 지방의회법(안) 규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과의 분리에 따른 실익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지방의회법(안) 연내 국회 본회의 가결 촉구"

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방의회의 오랜 숙원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안)을 대표발의하고 공청회를 함께 개최해주신 전현희 국회의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지방의회법(안)의 제정 취지는 낱말이 외면을 넓혀가는 지방정부의 행정을 보다 철저하게 감시·견제하고, 주민 뜻에 부합하는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위상을 확보하기 위함이다"고 밝혔다.

양 의장은 이어 "지방의회법(안) 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한계를 극복하고 위상을 제고해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를 준비하겠다"며 "올해 안에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될 수 있도록 전현희 국회의원의실과 긴밀한 공조와 노력을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번 공청회에는 양준욱 서울시의회의장을 비롯해 김광수(노원) 의원, 김동욱 의원, 김선갑 의원, 김정태 의원, 김제리 의원, 김태수 의원, 김창원 의원, 문영민 의원, 서운기 의원, 신원철 의원, 조규영 의원 등 12인의 서울시의원이 참석했다. 공동주최자인 전현희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두관 의원, 김성수 의원, 노동래 의원, 박병석 의원, 박영선 의원, 신창현 의원, 우원식 의원, 이용주 의원, 이훈 의원 등 10인의 국회의원이 자리를 빛냈다.

백중현 기자 bjh@m-i.kr

서울시의회, 지방의회법(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박진우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양준욱 의장과 의원들이 12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지방의회법(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지방의회법 제정 민주주의 발전 기여”

신원철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단장, 공청회서 밝혀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 신원철 단장(서대문1·더불어민주당)은 12일 국회 의원회관 제2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 좌장으로 참석해 토론을 이끌었다.

이번 공청회는 서울시의회의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결실을 맺은 지난 2월 8일 ‘지방의회법(안)’ 발의의 후속작업으로서, 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원철 단장은 기초발언을 품

해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운영되듯이 지방의회도 지방의회 운영 전반에 대한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며,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는 2017년 8월부터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 왔고, 그 노력의 결실로 지난 2월 8일 ‘지방의회법(안)’이 발의됐다”고 강조하며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위상강화와 독립성, 자율성 확보는 물론 대한민국 지방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지방의회법’



이 올해 본회의에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의견을 부탁했다.

/유한태기자 yhn1198@sabiwon.com

“지방권력도 삼권분립 필요”

13일 '지방의회법' 공청회
“올해 본회의 통과되도록”

“지방분권 헌법을 고안하고 있는
조금에 지방의회에 대한 관심이 높
지 않은 것은 반지수를 잘못 짚은 것
이다 ... 지방권력에도 삼권분립이
있어야 한다.”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개헌과 발개
로 지방의회 위상을 높이는 '지방의
회법' 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지
관심이다. 12일 전현희 국회의원과
서울시의회가 법 제정 공감대를 확
산시키기 위한 공청회를 연 가운데
현역 국회의원들이 줄줄이 참석, 힘
을 실었다.

지방의회법은 현 지방자치법이
‘갑 단체장, 약 의회’ 구조로 되어
지방의회가 지방정부의 하위기관으
로 종속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한 지방의회 기본법이다. 서울
시의회 지방분권TF에서 ‘국회법’에
작안, 지방의회 구성과 운영 전반을
아우르는 독립 법률 제정을 준비해
왔다. 지방의회 독립성 자율성 확보
를 위한 광역의회 정착지원 전문인
력 도입을 비롯해 자치입법권 자치
조직권이 총 12장 미조로 구성된 법
안 핵심이다. 지방의회 예산편성 자
율화, 교섭단체 운영·지원체계 마련,
연사행동화 도입, 지방의회 사무기
구 설치 등이 포함되었다.

12일 공청회는 법안 발의에 이은
작업으로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
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김태영 경희
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방의회가
부활된 이후) 지난 27년간 우리가 목
격한 것은 재왕적 단체장의 등장”이
라며 “재왕적 단체장을 견제할 수 있
는 가장 일반적이고 중요한 방안은
지방의회 활성화”라고 법안에 의미
를 부여했다. 김 교수는 지방의회법
이 대통령이 약속한 연방제 수준 자

치분권을 추진과정에서 걸림돌을 제
거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재
왕적 단체장을 제지할 수 있다면 과
감한 분권이 가능하다”며 “관객 이
양이 지방의회 중심으로 추진돼야
민주공화정의 가치가 지역사회로 확
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고문헌 한국헌법학회 회장은 “지
방의회법안 제정이 꼭 필요하다”며
“심숙한 지방자치 구현에 기여하도
록 전반적으로 잘 제정됐다”고 논평
했다. 허혜영 국회의원보조사처 임법
조사관은 “지방의회 위상을 확립하
고 독립성을 강하게 지방자치와 불
분리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이라면서도 “지방자치법에서 지
방의회 관련 규정을 분리할 때 장·단
점을 고려해 실익을 따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공청회에는 전현희 국회의원을 비
롯해 김부관 김성수 노용래 박병석
박영선 신창현 우원식 이용주 이
춘의원이 참석했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장병완 민주평
화당 원내대표, 유재중(자유한국당)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까지 여
야를 넘어 측사로 힘을 보탰다.

신원철 서울시의회 TF 단장은 “대
한민국의 미래 가치는 분권과 자치분
쟁에 이루어낼 수 있다”며 “지방자치
와 지방분권 핵심 축인 지방의회와
지방정부가 수평적 권한과 책임을 갖
고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진정한 지
방자치시대가 열릴 수 있다”고 말했
다. 양준옥 서울시의회 의장은 “나
이 외연을 넓어가는 지방정부 행정을
보다 현저하게 감시·견제하고 주민
뜻에 부합하는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며 “올해 안에 국회 본회의
에서 가결될 수 있도록 전현희 국회
위원실과 긴밀한 공조와 노력을 펼치
겠다”고 약속했다.

김진영 기자 inkim@naeil.com



서울시의회가 전현희 국회의원과 함께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을 발의한데 이어
12일 공청회를 열고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본사 제공)

서울시 지방자치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분권TF 지방의회법 제정 노력...8일 발의



◇서울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속적 노력 결실 맺음.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 신원철 단장(서대문1,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 좌장으로 참석하여 토론을 이끌었다.

이번 공청회는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결실을 맺은 지난 2월 8일 '지방의회법(안)' 발의의 후속작업으로서, 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한다.

신원철 단장은 기초발언을 통해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운영 되듯이 지방의회도 지방의회 운영 전반에 대한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며,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 TF는 2017년 6월부터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 왔고, 그

노력의 결실로 지난 2월 8일 '지방의회법(안)'이 발의됐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한다.

'지방의회법'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핵심 축인 지방의회와 지방정부 사이의 견제와 균형을 확립하고, 지방의회의 조직·운영 등의 전반을 아우르는 지방의회 기본법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을 비롯해 지방의회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등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 7대 과제를 모두 담고 있다.

신원철 단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위상강화와 독립성, 자율성 확보는 물론 대한민국의 지방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지방의회법이 올해 본회의에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의견을 부탁했다.

김기선 기자kgs@skibn.com

국회·서울시의회 “지방의회법 제정에 힘 모아 야”

이강훈 기자 gh@tbsv.or.kr [앵커]

중앙정부에 줄린 행정 권한을 지방정부에 분산시키려는 논의가 문재인 정부 들어 더욱 탄력을 받고 있는데요.

자칫, 지방분권 강화로 인해 자치단체장이 권력화 되지 않도록 지방의회의 권한도 함께 높여야 한단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런 취지를 담은 '지방의회법' 제정안이 지난달 국회에서 발의된 가운데 오늘(12일) 관련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기자]

현재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8대2 수준.

지방정부의 기능이 커지면서 이 비율을 6대4로 조정하고, 지방에 법률제정권 등 입법 권한을 부여하자는 논의도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방분권이 강화될 조정인데, 이로써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사이에 권한 불균형이 생긴다면 이는 또 다른 문제가 됩니다.

<전현희 국회의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커지고 지방정부의 권한이 격상이 되면 그에 상응해서 국민들이 직접 뽑은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 책임이 더 강화돼야 합니다."

그동안 정치권에선 지방분권을 강화하겠다며 '지방자치법' 개정이 논의되었는데, 지방의회 개혁에 대해선 별도 법안이 필요하단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신원철 단장 /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단>

"지방자치법 개정만으로는 지방의회의 위상 강화와 독립성, 자율성 확보는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6월부터 자체 TF를 구성해 지방의회법의 기본이 될 주요 내용을 마련했고, 마침내 지난달 지방의회법 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의회 전문인력 확보와 인사권 독립, 자치조직권 강화, 자치입법권 강화, 예산편성 자율화 등의 내용이 골자가 됐습니다.

12일 국회와 서울시의회가 함께 개최한 '지방의회법 제정 공청회'에선 관련 법안의 필요성과 주요 내용이 발표됐습니다.

<양준욱 의장 / 서울시의회>

"시민들을 위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으려면 전문 보조 인력이 필요하고 인사권 독립이 필요하고 국회와 마찬가지로 지방의회도 사무처 인사 독립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날 공청회에선 지방의회법이 실제로 통과되기까지 넘어야 할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점도 무게감 있게 다뤄졌습니다.

무엇보다 여전히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를 부담스러워하는 중앙 정치권과 중앙정부를 설득하는 게 과제라는 겁니다.

<김광수 의원 /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국회는)지방의회 기능이 잘못 됐다. 새롭게 지방의회법이 만들어지면 좋겠다고 말하지만 사실 1년 동안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조차도 아직 통과되고 있지 않아요."

<기자스탠딩>

또한 6월에 있을 지방선거를 전후로 지방의회법 제정 이슈가 묻혀버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 가운데, 언론과 시민사회의 관심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함께 높아졌습니다.

tbs 이강훈입니다.
gh@tbsv.or.kr

서울시의회-전현희 국회의원, 지방의회법 제정 공청회 열어

이진원 기자 "지방의회법 제정 통해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 열 것"



▲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 참석한 국회의원 및 서울시의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시의회)
 [시민일보=이진원 기자] 서울시의회는 지난 12일 오전 10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공청회는 지난 2월8일 지방의회법 발의 이후의 후속작업으로,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 공청회에는 공동주최자인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과 민주당 무원식 원내대표, 김두관, 김성수, 노웅래, 박병석, 박영선, 신창현, 이훈 의원을 비롯해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 등 10인의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시의회에서는 양준욱 의장과 조규영 부의장을 비롯해 신원철 지방분권 TF스킵포스(TF) 단장과 김광수, 김동욱, 김선갑, 김청태, 김재리, 김태수, 김창원, 문영민, 서윤기 의원 등 12인의 시의원이 참석했다.

세부적으로 1부 개회식에서는 우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주요 인사들이 서울시의회의 지방분권 실현 노력을 격려하고, 지방의회법 제정 취지와 필요성에 깊은 공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2부 공청회는 신원철 단장을 좌장으로, 고문현 한국헌법학회장과 김태영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김광수 의원, 하해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안성용 <CBS> 정치부장 등 5인 패널이 참석해 토론을 이어나갔다.

이날 양준욱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방의회와 오랜 숙원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안)을 대표발의하고 공청회를 함께 개최해주신 전현희 국회의원에게 깊은 감사올 드린다"면서 "지방의회법안의 제정 취지는 낱알이 외연을 넓혀가는 지방정부의 행정을 보다 철저하게 감시·견제하고, 주민 뜻에 부합하는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위상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지방의회와 연계를 극대화하고 위상을 제고해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를 준비하겠다"면서 "올해 안에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될 수 있도록 전현희 국회의원과실과 긴밀한 공조의 노력을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 참석한 패널들이 토론을 이어 나가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시의회)

공청회 좌장인 신현철 단장도 기초발언에서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운영되듯, 지방의회도 지방의회 운영 전반에 대한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면서 "지방의회법 제정이 지방의회 의 위상강화와 독립성 및 자율성 확보는 물론, 대한민국 지방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지방의회법이 올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토론회에서는 참석한 패널들도 의견을 제시했다. 먼저 고문헌 학회장은 지방의회법이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도록 체계적으로 제정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발표하면서, 법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했다.

김태영 교수는 "지방의회법은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 강화라는 시대정신을 담고 있으며, 대통령이 밝힌 연방제 수준의 분권을 실현 시키고 세왕적 단체장의 등장을 막을 수단으로서도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광수 의원은 "지방분권은 국가의 경쟁력"이라며 "지방의회법은 대한민국의 지방분권을 위해 지방의회 스스로가 위상확립을 추구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인 '자치와 분권'의 가치를 생각한다면 지방의회법은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하해열 임법조사관은 "지방의회법은 지방의회 독립성을 강화하고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목적으로 발의됐으나,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예 따라 지방의회법 규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과의 문리에 따른 실익에 대해 연말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안성용 정치무장은 "지방분권의 위침에 대해 중앙언론이 침묵하고 있다는 자성론도 있다.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중앙언론의 역할도 중요하고, 지방의원 또한 국회의원의 지역대리인 역할에 그쳐서는 안 된다"면서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로 구성되는 지방의원들이 적극적인 활동으로 언론을 타고, 언론이 지방의회에 대해 관심을 갖는 선순환 고리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진원 기자 yjw@siminiibo.co.kr